



선교사의 핵심: 8월 9일, 2020

맷과 줄리 에스펠랜드

마다카스칼

선교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노력의 결과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타날라 (Tanala) 사람들은 숲이 우거진 한 가운데서 일상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다카스칼의 타눌라 (Tanula) 산에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4,500 평방 마일에 걸쳐 삽니다. 포장된 도로가 하나만 있으면 접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족입니다. 해외 선교부 선교사인 맷과 줄리 에스펠랜드는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자 거칠고 위험한 타눌라의 숲을 따라 하이킹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많은 마을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은 초가 오두막 집에 살고 매우 가난합니다. 에스펠랜드선교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종종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에스펠랜드의 선교 여행은 약간의 영화 대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 생활의 일부입니다. 다행히도 일부 타날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며 성서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아프리카 연안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협동 선교를 통해 맷과 줄리를 후원합니다. 오늘, 마다카스칼의 타날라에서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 지도록 기도합시다.